

## 칭찬인가? 책망인가? (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가운데 칭찬만 들었던 교회들이 있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이다. 이 두 교회는 책망을 전혀 듣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었기에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을까?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 “적은 능력”이란 적은 믿음이나 적은 헌신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도 다른 교회들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적은 능력이란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심히 약한 교회이야”라고 할 정도로 교인 수도 적고, 교인들이 가난하여 교회 재정도 심히 약하고, 그들 가운데 유력한 인사들도 없는 교회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던 것이다. 왜 칭찬을 받은 것인가? 그런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취하는 태도와 삶은 어떠한가? 가장 먼저 에누리하고 파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예수님도 배가 따뜻한 다음에야 믿지 지금 한가하게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내가 성공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빌라델비아 도시는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요충지였다. “아시아로 가는 관문”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로마의 정치, 문화의 통로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예수님이 없는 문화와 종교, 사회적 도전과 유혹을 받는 교회이었다. 게다가 그들 가운데 “사단의 회”라 불리우는 자칭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도 있었다.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이 있다면 유대 사회에서 왕따시켰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회당에도 참석치 못하게 하였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로마 당국에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하였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도시는 지진이 잦은 도시였다. 특히 주후 17년에는 큰 지진이 있어서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도시를 재건하여 그 일로 황제 숭배가 강요된 도시였다. 그러니 이런 모든 면을 볼 때 어찌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비록 못 먹고 못 사는 일이 있더라도 적은 무리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신 것이다. 소수의 몇 명만이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의 교회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믿는 자답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셨듯이 그토록 자기들을 핍박하였던 유대인들까지도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토록 핍박하고 완악한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도전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고 교회의 파위가 아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교인 수나 넉넉한 재정이나 거대한 건물이나 재능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과 경력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적은 능력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핑계만 늘어놓는 우리들은 아닌가! 오히려 적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칭찬과 불신자들에게 도전과 전도의 문을 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